

특 집

세상을 바꾸는 민주노동당!

부산 연제에서 쏘아올린 진보정치의 희망

지난 1월 26일 민주노동당 부산시지부는 결성대회 및 총회를 열어 16대 총선방침을 확정했다.

민주노동당 부산시지부

부산시지부 총선방침

민주노동당 부산시지부는 1월26일 결성대회 및 이어 열린 총회에서 16대 총선 방침을 다음과 같이 확정했다. 첫째, 연제구에 민주노동당 부산시지부 박순보 지부장을 민주노동당의 후보로 출마시켜 당선을 목표로 당의 물질·인적 역량을 우선적으로 집중하며, 여타 지역에서의 후보 출마를 위한 재반 활동을 진행한다. 둘째, 1인 2표 정당명부제에 대응하여, 부산광역시 차원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홍보와 선거운동을 진행하여 15% 이상의 득표를 이루어 부산지역에서 제2당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고, 당의 대중적 기반을 확대한다. 셋째, 총선을 통하여 민주노동당 부산광역시 지부의 당원을 확대하고, 조직적 내용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민주노동당 부산광역시 지부를 총선까지 선거체제로 전환하여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총선재정 모금에 5만원 이상의 총선

이창우

민주노동당 부산시지부 조직국장

특별 기금 납부와 총선 시기를 전후하여 신규당원 1인 이상을 가입시킬 것을 결의했다.

총선방침의 첫째 목표로 박순보지부장의 당선을 목표로 당의 역량을 집중한다는 데 대해 “당이 선거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총선과 맞물려 진행될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 등 민중생존권 투쟁에 결합하는 문제가 간과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당선을 우선 목표로 할 때 자칫 투쟁의 관점이 희석되는 것 아니냐”는 등의 비판도 없지는 않았으나 그와 같은 원칙의 문제는 굳이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위의 방침이 확정되었다.

1인1표제 선거법 개정

이미 지나간 얘기지만 1인2표제가 유효시되는 상황에서는 자민련 모지구당 위원장의 이력을 갖고 있는 이들도 민주노동당부산시지부에 조직책 신청을 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있었다. 사실상 부산지역에서 민주노동당은 16대 총선을 거치면서 제2당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1인1표제와 지역구 26석 감축, 시민단체의 제한적인 선거운동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버린 날 아침, 민주노동당부산시지부는 격양된 어조로 즉각적인 선거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

다. 지역할거 구도의 3당 구조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 이번 선거법 개정은 신생 정보 정치세력의 원내 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개악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1인2표제가 물 건너가자 기존 보수 정당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받던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율도 차츰 하락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채택되었을 경우 민주노동당에 투표하겠다는 유권자가 1인1표제에서는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차악의 선택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2월 11일 민주노동당부산시지부 강당에서 개최된 총선투쟁 방침 토론회에서는 개악된 선거법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다각도로 제출되었고, 보다 적극적인 후보전술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민주노동당부산시지부 총선대책본부 집행위에서도 추가로 후보를 낼 필요가 있다는 데 대체로 공감했지만 선거가 너무 압박해 있고, 갇출범시킨 당의 인적·재정적 능력의 한계로 말미암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과 다른 지역과는 달리 연제구 박순보후보의 경우 당선 가능성에 있는 후보이므로 부산지역의 경우 ‘적극적 후보 전술’은 연제구 박순보후보의 당선에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애초의 방침을 적극 관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제 할 일은 ‘뛰어드는 것’이다.

박순보 지부장 연제구에 출마

시지부 당원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연제구에 출마시킬 후보로 박순보 시지부장을 선출했다. 박순보 민주노동당부산시지부장은 부산 서민증학에 재직하면서 1988년 평교사협의회 창립을 주도하고 1989년 부산교사협의회 부의장, 전교조 부산지부 수석부지부장, 1989년 해직, 1990년 전교조 부산지부 2대 지부장에 당선되면서 본격적인 부산지역 민족민주운동 진영의 핵심인물로 떠올랐다. 전교조 부위원장, 민주주의 민족통일 부산연합 상임의장,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고조수원동지 전국노동자장 장래위원장 등 주요 직책을 역임하면서 강단의 교사에서 거리의 교사로, 민중의 교사로 성장해온 부산지역 거목급 재야 인사이다.

이번 16대 총선에 앞서 14대 총선에서는 부산 동래울(현재의 연제구)에서 김영삼의 오른팔이라고 하는 최형우와 당당히 맞겨루어 28.67%(3만4천626표), 15대 연제구 2회전에서는 25.75%(2만6천225표)를 획득하여 당시 민족민주운동 진영의 후보 중 최다 득표율을 기록한 바 있다.

16대 총선을 앞둔 부산지역의 정치지형

부산시지부 총선투쟁 방침 토론회에서는 16대 총선허형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최근 총선정국을 되짚어보면 총선시

민연대의 낙천 낙선운동으로 기성 정치권에 환멸을 느끼는 시민층에 ‘이번에는 바꾸자’라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 형성되고는 있지만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의 ‘PK죽이기 작전’이란 역선허도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가고 있다.” 더군다나 한나라당 정형근의원에 대한 검찰의 체포시도가 쟁집화되면서 반 DJ 정서가 한나라당으로 응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16대 총선은 한나라당의 압도적 우위 속에서 민주당이나 자민련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반 DJ 정서가 갈수록 노골화되는 상황에서는 노무현, 김장길 등 소위 거목급 민주당 후보들도 별다른 선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자민련의 경우에도 김동주 등이 상대 후보의 함량 미달 등으로 나름대로 선전할 수는 있겠지만, 결과는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연제구 선거 환경

① 예상 투표율

지난 1월 한길리서치의 연제구면 700명에 대한 연제구 선거 환경 여론조사에 따르면 반드시 투표한다가 59.8%, 가끔적 투표한다가 14.4%, 그때 가봐야 알겠다가 21.4%로 나타났다. 실제 투표율은 과거 선거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보다 약 5~10% 낮았던 것을 감안하면 50%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4대 때는 69.9%였고, 15대는 60.7% 정도였다. 최근 총선연대의 낙천낙선 운동의 영향으로 젊은 층의 투표참가율이 다소 올라갈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역대 선거보다 투표의사가 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② 정당 지지율

정당 지지율에서 한나라당이 34.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민주노동당이 12.6%, 홍사덕-장기표 신당이 8.3%, 국민회의 신당이 7.2%, 자민련이 5.3%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무당층은 31.9%였다. 한편 지난 해 11월 부산대 사회교육학부에서 부산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당 지지율에서 한나라당이

32.2%, 국민회의 9.2%, 자민련 1.3%, 민주노동당 2.1%의 응답을 보였고 55.3%가 지지할 정당이 없다고 응답했는데 이들 무당층의 44.4%가 민주노동당이 창당되면 지지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무당층의 동향만 보면 1월의 한길리서치에 조사에서는 31.9%로 줄었는데 이는 연재의 경우 민주노동당 12.6% 지지와 장기표당 8.3%의 지지의사 표시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망

YS의 오른팔 최형우가 없는 연재구에는 한나라당 공천 신청자가 10여명에 이르러 전국 최고의 공천 경쟁률을 보였다. 문정수 전 부산시장이 유력한 후보로 거

지난 총선에서 2만표 이상을 득표한 바 있는 박순보 지부장 (사진 오른쪽)



론되다가 이기택 한나라당 전 총재권한 대행이 공천을 신청하면서 한나라당 거물급 현역의원과 맞겨루는가 했더니 2월 18일 최종 공천자로 권태망 전 시의원으로 낙점되면서 상대 선수의 윤곽이 드러났다. 이에 1월에 조사한 출마 예상자에 대한 인지도 조사에서는 박순보 후보 40%, 권태망 후보는 23%로 후보 인지도에서는 박순보 후보가 현격한 차이로 앞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최소한 연제구에서는 인지도의 우위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 권태망 후보의 경우 시의원으로서 있으면서 연제구 연산동에서 초대형 가스충전소를 건설하려고 했다가 이 지역 주민의 조직적 민원과 반발을 산 전력에 있는 인물이며 이같은 인사에 대한 공천은 예상 밖의 일이었다. 이같이 이기택과 같은 소위 '중진'을 낙천시키고 YS의 본거지인 이 지역에서 이총재의 친정체제 구축에 나서자 공천 탈락자들의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는 등 '무소속 연대' 등 반

발기류가 강하게 형성되고 있어 한나라당 표의 분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어쨌든 이번 총선 최대 변수는 50%에 이르는 무당파층의 향배일 것이다. 이들 무당파층은 지난 2년간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초래한 대량 실업, 사회의 양극화 등 전반적인 삶의 질 악화와 민주개혁의 실종과 후퇴,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새로운 그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있다. 총선연대의 낙천, 낙선 운동이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이들 무당파층은 4.13총선에서 기성 보수정권에 투표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사를 밝히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승리는 이들 무당파층으로 하여금 기성 정치에 대한 혐오를 뛰어넘어 진보와 실질적인 개혁의 주인으로 우뚝 세울 때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그것을 실천해야 할 때이고 부산 연제에서 민주노동당의 선전은 그 신호탄이 될 것이다. ♦